

다이쇼인 절: 계단 순례

다이쇼인 절의 관음당에서는 입구 근처에 좁고 기묘한 분위기의 내려가는 계단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곳이 바로 계단(戒壇) 순례의 입구입니다. 계단 순례는 어둡고 좁은 곳을 통과하는 수행을 뜻하는데, 계단을 내려가기만 하면 누구나 체험할 수 있습니다. 어두컴컴한 지하통로는 관음의 신체 내부를 상징하며, 이곳을 통과하면 마음이 정화되고 정신을 수양할 수 있다고 합니다. 통로의 왼쪽 벽에는 주고쿠 지방(미야지마 섬이 속해 있는 지역)에 있는 37개 사원의 관음상이 그려진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각각의 그림 앞에 놓인 양탄자 아래에는 벽에 그려진 관음상을 모시고 있는 사원의 모래가 깔려 있습니다. 이 모래는 사원의 성역을 의미합니다. 37개 각각의 그림 앞에서 기도를 올리면, 1,500km에 이르는 주고쿠 지방의 관음 순례를 완주하는 것과 같은 부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몇 주에 걸쳐 험난한 길을 걷을 수 없었던 귀족 계급이 편리하게 순례를 마칠 수 있도록 고안된 방법이었습니다.